

제7차 체육과 교육과정의 효과적 운영 방안

김영식 · 이연숙*
한국교원대학교 · 대원과학대학*

Effective Management Methods of the 7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

Kim, Young-Sik · Lee, Yeon-Sook*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Daewon Science College*

ABSTRACT

This research was intended to have a grasp of the problems in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 After making an alternative plans of effective management. those were integrated and analyzed their own relations on the purpose of suggesting alternative plans to foster professionalism of physical education teacher in order to improve real class of physical education.

For this purpose, I referred to sundry records related with instruction of physical education teacher and also conducted a survey with 10 interviews such as researchers of central government education administration, and school commissioners in the ministry's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professors in the university of pre-teacher training, and teachers involved in physical education. The conclusions were as follows;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 should be organized to reduce and diversify of the sport contents in various levels. Also, it should instruct students based on physical educational knowledge, and it is made up to know the achievement of goals through evaluation tools and development of rules having propriety and reliability. Such a physical educational curriculum developed from real class should inform continuously throughout the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nd educational organization of physical education teachers and network of the school and mass media. So, it makes most people's recognition raise up, and we need discretionary authority of physical education teacher about time allocation of 45 minutes or 50 minutes for variety of lessons. And we need systematic installation such as reorganization of completion field in level of school.

I. 서론

인류문명은 부의 산출방법의 변화에 따라서 발전해 왔다. 농업혁명기로 대표되는 제1의 물결 문명에서는 농·수산물, 광물 등의 천연자원이 부를 생산해 왔으며, 제2의 물결 문명인 산업혁명 이후 300년 간은 토지, 노동, 원자재, 자본 등이 핵심 자원으로 대량생산 방식이 부를 생산해 왔다. 제3의 물결 문명에서는 지식, 데이터, 정보 등이 핵심 자원을 이룰 것이고, 이러한 무형 자원은 제2의 물결 문명의 핵심을 이루어 왔던 유형자원의 유한성을 뛰어넘어, 그 무한한 대체재로서 기능하게 될 것이다(Toffler 1994).

이것은 앞으로 국익의 가치가 물질적 자산보다는 인간의 아이디어, 통찰력, 정보 등의 지식 기반에 의존하게 되며 지식을 습득하고 창조하며 확산시키는 능력은 제3의 물결 문명의 핵심 자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며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인력을 양성하고 공급하는 교육의 역할은 급세기에 들어 더욱 더 중요하게 되었다.

교육을 성립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교육과정, 교사, 학생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학교의 교육은 교육과정을 근간으로 이루어지고,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에서 계획한 교육의 핵심요소로 이해되어 지고 있다. 또한 교육과정은 현재의 학생이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러한 사람으로 육성시키는데 필요한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을 설계한 교육의 청사진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에 무엇이 어떻게 담겨지고 어떻게 운영되느냐가 결국 한 나라의 교육을 결정하고, 나아가 그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김재복 외, 1996).

곽명선(1985)은 교육과정을 학교교육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어떠한 교육목표를 어떠한 교육내용과 방법, 평가를 통하여 성취시킬 것인가를 정해 놓은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이라고 정의하였으며, Eisner(1985)는 교육과정을 일련의 의도된

교육과정(intended curriculum)과 실행된 교육과정(operational curriculum)으로 분류하고 의도된 교육과정은 교육적 의도가 담겨있는 계획된 활동, 즉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활동에 그들이 열중하도록 의도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이며, 교육의 목적, 내용, 활동, 결과 등에 관한 계획이라고 보았으며, 실행된 교육과정은 학급 내에서 일어나는 독특한 사태들로 교사와 학교와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들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와같은 교육과정의 개념 속에는 학교 교육이 일정한 원칙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와 학습해야 할 내용을 체계적으로 결정하고 조직한, 즉 교육실천 활동계획의 제반사항을 문서화한 의미가 포함되므로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정하는 교육과정의 국가적 기준, 다시말해 각급 학교 교육과정을 비롯하여 각종 교과서, 각종 교육에 관한 지침, 각급 학교의 교육계획, 평가계획, 기타 학교교육에 관련된 모든 문서화된 계획 등 모두가 교육과정 개념 속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표면적 교육과정(manifest curriculum)과 학교나 교사가 의도하지도 않았던가 혹은 교육과정이나 수업을 통해서 계획적으로 노력한 것이 아니었지만 학습자 각자가 각각의 사태에서 은연중에 학습자들에게 행동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포함하는 잠재적 교육과정(latent curriculum)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한편, 강신복(1993)은 체육교육과정을 교육목적과 연계하여 설정된 체육교육의 목표와 그 목표에 근거하여 타당성 있게 내용과 범위가 체계적으로 나타나 있으며, 학교의 합리적인 계획과 교사의 체계적인 지도 아래 이루어지는 지식 및 경험과 이와 관련된 문화 내용을 교육적으로 재구성한 국가 및 사회적 수준의 계획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최의창(1996)은 체육교육과정을 체육학 및 스포츠 교육학의 관계에 대하여 학교체육에 관한 교육적 탐구를 그 주된 연구활동으로 하는 체육학의 하위 학문영역으로서 스포츠교육학을 설명하였고 스포츠 교육학의 영역 중 하나로

서 체육교육과정을 분류하고 있다. 그러므로 체육교육과정은 학교의 합리적인 계획과 체육교사의 체계적인 지도 아래 이루어지는 학습자의 학습 경험의 총체라고 할 수 있고, 때로는 학생들이 무엇을 배울 것인가와 교사가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해 놓은 문서를 지칭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의 교육과정이 새로 구성되거나 개편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 그것은 수없이 많은 교육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원안이 작성되고, 크고 작은 공청회를 거쳐 수정되고 다듬어진 다음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공포된다.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일단 확정된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들어가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재현되며 그것이 어떤 종류의 교육적 성장을 학생들에게 가져오느냐 하는 문제는 교육과정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전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마치 연극에서 하나의 각본이 연출자와 배우의 역량이나 감각에 따라서 훌륭한 무대로도 졸렬한 무대로도 재현될 수 있듯이, 하나의 교육과정은 누구의 손으로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교육과정으로 전개되는 것이다(김호권, 1977).

현재 일선 학교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체육과 교육과정은 사회변화에 따른 시대적, 사회적 요청에 따라 교육경험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또는 체육의 성격이나 지식체계의 진보 등과 같은 요인으로 인하여 주기적으로 개정되어 왔으며 그때마다 새로운 교육과정을 학교 현장에 전달하기 위한 연수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졌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시·도교육청의 교육과정 업무 담당자들을 소집하여 이전의 교육과정에 비하여 새 교육과정이 달라진 부분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식 연수가 이루어지고 그것은 차례로 학교 현장까지 전달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수의 전달과정에서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현장의 교사 수준까지 도달하게 되는 그 연수 형태는 마치 하나의 공문 전달하듯이 교육과정이 개정되었음을 알리고 개정된 내용을 한두 번 회람하는 식의 요식 행위 수

준으로 그쳐 버리는 것이 그 동안의 관행이었다. 이것은 이병준(2001)의 보고에서와 같이 37개 학교에서 각 학교 한 명씩 체육교사가 참여하고 체육과 출신교감 선생님이 1시간 동안 내용을 읽는 수준에서 개정된 새로운 교육과정을 설명했다는 교육과정 연수전달 방식의 허실을 잘 말해주고 있다.

또한 현행 체육과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능력과 발달단계에 적합한 내용구성, 학생의 능력과 요구, 학교 특성과 학습 내용의 특성, 시설, 지역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영역과 세부내용 그리고 중점지도 내용을 필수와 선택으로 구분하고 새로운 교육적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시도되고 있으나 공시한지 5년밖에 안된 이 시점에서도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이상적인 모델과 체육과 교육과정의 모델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현장간에는 괴리가 존재하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며 수정 고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타나고 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1999).

이와 관련한 체육과 교육과정 문서의 자체적인 문제와 운영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의 여러 연구들이 다양한 방면에서 수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 대한 체육교사들의 인식을 알아보고 관심도와 활용도(한국교육개발원, 1996; 장지원, 1995; 조미혜, 1993)를 중심으로 교육과정 실행의 장애 요인과 촉진요인을 제시(김재현, 1997; Moore et al, 1984)하였다. 그리고 교육과정의 구성요소 중 목표, 평가부분과 같이 단편적으로 연구된 결과(황현자, 1997)들과 실태에 대한 조사보고서 성격의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었다. 반면, 이 연구는 현행 체육과 교육과정의 구성 뿐만아니라 운영과 지원 체계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연구의 성격을 지니며, 현장 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 측면을 감안해 볼 때 제7차 체육과 교육과정의 문제점 해소를 위한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도출하는 데 의의가 있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의 대상은 면담 결과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표 1>과 같이 체육과 관련된 분야를 4개 분야로 나누고 각 분야별로 2~3명씩 총 10명을 선정하였다.

2. 자료수집

이 연구에서는 제7차 체육과 교육과정의 문제점 분석을 위한 1차 면담과 1차 면담내용의 분석을 통하여 밝혀진 문제점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운영 방안 모색을 위한 2차 면담을 반표준화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반표준화 면담은 사전에 질문을 작성하여 모든 응답자에게 같은 순서와 어구로 동일하게 질문함으로써 어구나 순서를 바꾸는 데서 오는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표준화 면담과 질문의 순서나 내용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고 면담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변경함으로써 예상하지 못했던 사실이나 아이디어를 발견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비표준화 면담의 장·단점을 보완한 것으로, 일정한 수의 중요한 질문을 표준화하고 그 외의 질문은 비표준화하는 방식으로 면담의 목적과 질문리스트가 기재되어 있는 면담지침

을 사용하되 이 지침의 범위 안에서 면담자가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갖는 방법이다.

반표준화 면담용 질문지(semi-structure interview questionnaire)는 연구자가 질문 범주를 정하고 세부 질문항목을 설정한 후, 체육관련 교수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체육교사로 구성된 1차 전문가 협의를 통하여 수정하였다. 수정된 면담용 질문지는 체육관련 전문가 2명과 실제 면담을 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2차 전문가 협의를 통하여 보완한 후 최종 면담용 질문지로 결정하였다. 다음의 <표 2>은 질문지의 구성체계이다.

먼저 면담자는 사전에 면담을 위한 전문적인 면담기법을 교육받았다. 즉, 응답자가 말한 내용을 요약하거나 바꾸어 쓰지 않고 상세히 그대로 적을 것, 기록으로 인해 응답자의 관심을 잃지 않도록 주의할 것, 질문의 목적과 관련된 내용은 사소한 것이라도 모두 기록할 것, 성, 연령, 직업, 면접 분위기, 면접 당일의 기분 등의 외적인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할 것, 면접상황이나 태도와 같이 면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사항들을 기록해 두는 등 예 비조사에서와 같은 실제 상황을 재연한 모의 사전 면담을 여러 번 실시하였다.

실제 면담은 연구대상자와 면담 일시를 확정 한 후 면담 대상자를 방문하여 미리 작성한 반표준화된 면담용 질문지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연구자도 그 면담용 질문지를 가지고 면담이 이루어졌으며, 면담을 위한 만남 이전에 면담 대상자가 상세한 사전 지식을 원할 경우, 팩스나 전화, 전자메일로 면담 취지와 과정 및 구체적인 질문 내용을 제시하였다.

1. 2차 면담내용은 제7차 체육과 교육과정의

<표 1> 교육전문가들의 특징

분야	면담 대상	직 위(지역)	교육 경력	학 위(전공)
중앙정부 교육기관	A	교과교육 전문가(서울)	17년	박사학위(체육교육)
	B	연구원(서울)	15년	박사학위(체육교육)
교육청	C	장학사(전남)	22년	박사학위(체육교육)
	D	장학사(경남)	24년	석사학위(체육교육)
양성 교육기관	E	교사교육자(충남)	17년	박사학위(체육교육)
	F	교사교육자(전남)	26년	박사학위(체육교육)
	G	교사교육자(인천)	19년	박사학위(체육교육)
중등학교	H	체육교사(대전)	10년	석사학위(체육교육)
	I	체육교사(경남)	14년	박사학위(체육교육)
	J	체육교사(경기)	12년	석사학위(체육교육)

<표 2> 반표준화 면담용 질문지의 체제

구분	구성항목
제7차 체육과 교육과정	목표, 내용, 교수-학습방법, 평가, 교과서 및 지도서, 교육환경, 교육과정 개발, 운영, 홍보

문제점과 효과적인 운영 방안에 관련된 질문을 포함하였으며, 면담내용의 기록 작성은 면담시 면담내용을 직접 기록 즉, 면담현장에서 간략하게 요약한 것을 후에 상세히 기술하는 방식과 면담을 마친 후 기억된 내용을 기록하는 방식, 면담시 연구대상자가 응답한 내용을 녹음하고 면담이 끝난 후 그 내용을 메모지에 정리하는 세 가지 방식을 병행하였으며, 특히 녹음 후 내용을 정리하는 방식은 정확한 기록이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였다. 모든 면담내용의 녹음은 면담자의 승인을 얻은 후 Panasonic RN-402 Recorder로 녹취하여 전사하였다.

3. 자료분석

1차 반표준화 면담용 질문지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는 각 분야의 면담자별로 하위 분석 항목에 따라 의견 제시 유무와 의견 내용을 기재하고 각각의 의견 내용을 분석하여 동일한 의견 내용을 몇 개의 범주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범주로 분류된 내용 중 교육전문가들이 중복으로 제시한 내용을 우선 순위로 정리하였으며, 우선 순위의 내용을 교육전문가들이 인식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간주하고, 2차 면담을 통하여 수집된 제7차 체육과 교육과정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 자료를 분석하였다.

Ⅲ. 연구 결과 및 논의

1. 제7차 체육과 교육과정의 문제점

현행 체육과 교육과정의 내용 편재에는 체조의 땀, 차오르기 육상의 제자리 멀리뛰기, 원반, 포환던지기과 같이 현대 학생들의 실용적인 교육내용에 대한 요구에 부합되지 않으며, 수영, 스키, 양궁과 같은 내용은 일선학교의 교육환경에서 현실적으로 가르치기가 어려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교육개발원(1996)

의 연구보고서에서 제시한 현장 적용 가능성이 낮은 영역으로 수영, 무용, 체조로 조사된 결과와 유사하다.

그리고 남녀 혼성학급이나 장애아가 포함된 학급에서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교육내용이 없으며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이 시대에 따라 바뀌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체육교육 내용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전 교육과정 시기의 내용이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다.

학생들이 체육수업시간에 습득하는 체육이론과 보건의 내용은 우천시나 동·하계의 기후에 따른 교실수업의 교수로 실제 경험에 의한 학습이라기보다 시험을 대비한 단순 암기에 그치고 있어, 실생활에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못하고 있다.

하나의 운동장 혹은 체육관에서 3~4학급의 학생들이 동시에 체육수업을 받아야 하는 학교 현장의 체육수업 환경을 고려해 볼 때, 좁은 공간에서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교육내용, 체육시설, 용·기구의 제작 및 활용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와 설명, 각 지방의 지형이나 기후, 체육문화 등의 독특한 특성을 고려한 교육내용의 개발이 시급하다.

교수-학습자료인 체육교과서는 예전에 비해 질적으로 많이 향상되었으나, 체육 연간 지도계획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일선 학교에서는 학년, 지역, 계절 등의 실정에 맞게 교육내용을 재구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모되며, 다시 각 학년에서는 학급의 실정에 맞게 필수내용과 선택내용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해야 한다. 또한 각 학교별로 진도가 다양하나 학습자료 및 인터넷을 통한 교수정보가 적절한 시기에 보급되지 못하고 있으며, 체육수업 시간에 학습한 다양한 신체활동을 실제로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방법 즉, 스포츠 관람이나 평생스포츠로의 구체적인 실천 통로의 제시가 교육과정 상에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실현되지 못하고 의도된 교육과정으로만 그칠 체제의 우를 범할 수 있다.

5년 주기의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체육교과의 평가부분은 학교 현장의 교육환경과 대학 입학시험 제도의 변화에 무관하게 원론적인 평가지침을 진술하는 한계가 있으며 각 학교의 체육교과에서 기본점수를 부여하는 관행적인 제도와 그 운영에 대한 지침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평가기준에 대한 체육교사들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수행평가의 경우 체육교과의 특성이나 체육교사의 성향, 학생들의 학습한 내용에 따라 평가의 방법이 다를 수 있는데, 일률적으로 시행하려는 방침으로 인하여 일선 학교의 체육교사들은 수행평가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고, 교육과정 변천에 관심을 잃고 있으며, 연례행사와 같이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감사에 대비하기 위한 평가안을 준비하고 있어, 실제 체육수업의 평가는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다(이제욱, 2001).

이것은 장지원(1995)의 연구에서 일선학교의 체육수업에서 이론 30%, 실기 60%, 태도 10%의 평가반영 비율을 가장 많이 적용하고 있다고 보고와 황현자(1997)의 연구에서 수영이나 투기 등의 실기는 거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가장 많이 평가되는 실기는 구기라고 보고한 점, 그리고 Leithwood(1981)가 체육교육에서 선다형, 표준화검사, 체력검사와 같은 전통적인 평가는 교육성과, 고등사고 기능, 통합적인 학습 등을 강조하는 교육의 효율성 면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주장과 유사하다.

그리고 교육전문가들은 국가의 교육기관에서 개발한 체육과 평가도구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학생들의 성에 따른 평가기준의 객관적 자료가 없음을 제시하였으며, 교육과정의 평가부분에서는 원론적 진술보다 실기과목의 평가에 대한 풍부한 자료가 사례중심으로 소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에서와 같이 교육현장의 실제 교육과 구조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교육과정 문서는 일선 중·고등학교의 교육 운영의 기본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는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한다. 이 점은 교육목표, 내용, 방법, 평가 면에 걸쳐

매우 중대한 영향과 피해를 가져온 근본적인 문제이다.

현행 체육과 교육과정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을 가미한 일부 분권적 형태를 취하고는 있으나, 체육과 교육과정의 개발과 적용이 이원화되어 교육과정의 현장적용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교육과정의 소비자로 인식되고 있는 현장 체육교사에게는 교육과정 개발의 참여와 의사결정권이 제한적이거나 주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7차례에 걸친 교육과정의 개정시 그때마다 새로운 교육과정을 학교 현장에 전달하기 위한 연수가 이루어졌는데, 2001년의 경우 전국적으로 교육과정 연수에 참가한 교원의 대부분은 8시간 이내의 단기 연수를 이수하였고,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 형태의 교육과정 연수를 이수한 경우는 4.4%인 26,722명에 불과하였으며, 60% 이상이 교과 교육과정이 아닌 교육과정 총론에 해당되는 연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교육인적자원부 2003).

체육과 교육과정의 운영적 측면에서는 각 학교별로 체육교육과정 운영위원회가 거의 조직되어 있지 않으며, 조직되어 있더라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거나 활동이 미비하고, 체육교육과정 운영회 자체를 체육교사들의 잡무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정영근(2000)의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RDD(research, development, diffusion)절차에 의하여 개발해 왔으며 그 결과 교사의 전문성은 교수라는 행위에 한정되는 경향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그리고 학교마다 육성하고 있는 운동부 지도, 교내 체육대회, 각종 대회의 심판이나 행사 진행 요원로서의 출장 등과 같이 수업외 업무로 체육교육과정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 이것은 허창혁(2001)의 토론자료에서 제시된 "올해 생활지도부 업무를 맞게 된 제 경우 신학기가 시작된 후 15일 이후부터 발생한 학생 사안으로 학생들에게 받은 진술서가 100여장이 넘습니다. 거의

하루 평균 2~3건의 학생 사안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안이 시급하고 큰 문제라면 수업 시간 이외에는 하루 종일 사안을 처리하는데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와 같은 내용으로 볼 때 현장 체육교사들의 실정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으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1999)의 조사에서도 교직의 가장 큰 고충은 과도한 학사행정 업무와 잡무처리로 나타났다. 그리고 Moore 등(1984)의 연구 결과에서도 과도한 업무와 우선 순위의 다른 업무가 교육과정 운영의 장애요인이라고 분석되어 이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실제 일선 학교에서의 사무분장은 교장을 정점으로 교감 아래 교무부장, 연구부장, 생활부장, 과학부장, 특별부장, 체육부장 등을 두고 그 아래 계를 다시 세분화하여 교사들에게 업무를 분담시키고, 그 외에 학년부장을 두어 학년의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현 교육현장의 실정에 맞지 않는 법제화된 체육교과의 주당 시수와 같은 이수 시간이 제고되어야 한다.

일선 학교에서 체육과 협의회를 통하여 체육과 연간 수업 계획과 평가계획을 작성할 때, 현행 체육과 교육과정에 대하여 문의를 할 전문가의 부재로 체육교사들이 체육과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적용하는 경우가 많고, 교육과정의 내용구성에서도 최적화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내용의 다양성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일상의 체육수업 전개 방식도 운동장이나 체육관에 집합하여 정렬한 후, 출석·복장·환자 파악, 운동장 돌기, 준비운동, 교사의 시범 설명 후 연습, 정리운동, 해산의 획일적인 순으로 정형화되어 있다(유정애, 2001).

제7차 체육과 교육과정의 실행에 따른 인력확보는 소규모 학교 등에서 체육교사를 원활히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규모가 작은 농·어촌 중학교의 경우 한 명의 체육교사가 2~3개의 과목을 동시에 지도해야 하는 상치교사들이 발생하고, 개개의 선택 과목들을 국가 수준에서 미리 정해놓고 그것을 고르도록 함으로써 선택의 한계를 갖게 되었으며, 학교에서는 실제로 그 과목을

개설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융통성과 개방성 있는 교육과정의 운영을 저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교육과정에 따른 체육수업이 교내행사나 입시를 위한 주지교과의 대체시간으로 이용됨으로써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체육교사가 지도하는 내용도 교육과정에 준하지 않고 교사편의 위주로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체육교과는 다른 교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용·기구와 시설이 필요하다. 따라서 체육수업의 효율화를 위한 학교의 교육환경 측면에서 제7차 체육과 교육과정의 운영 요건에 맞는 시설과 예산계획의 지침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나 체육관, 수영장, 운동장, 체육실험실 등의 학교건축을 계획할 때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교육명세서가 없으며, 교육부나 시·도 교육청, 지역 교육청 수준에서 교육명세서에 담아야 할 학교시설, 공간의 재편성 원칙이 개발되어 있지 않으므로 학교별로 추진하고 있는 체육관련 학교 건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Moore(1984)의 연구에서도 수업자료와 시설의 부족이 교육과정 실행의 장애요인으로 조사된 것과 전국 학교 체육시설 현황을 조사한 조미혜(2001, 재인용)의 연구에서 체육관(강당포함)은 초등학교 5,544개교 중에서 726개교(13.0%), 중학교 2,741개교 중 531(19.5%), 고등학교 2,066개교 중 926(44.8%)으로 평균 25.8% 확보율 수영장은 전국 학교 내에 있는 실내수영장 82개와 실외수영장 46개를 합쳐도 총 128개로 전국 10,351개교에서 1.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교육예산의 계획에서도 시설부족이나 낙후로 인하여 신축하는 건물일 경우에 현행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구조로 공간을 편성하고 기존의 시설, 공간은 재편성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에 관한 예산 추정작업이 선행되어 있지 않고 시·도별로 육성하는 운동부에 과도한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실제 체육수업을 위한 용·기구 및 시설의 확보가 어렵다.

2. 제7차 체육과 교육과정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

학교라는 제도적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체육수업은 주로 교사주도에 의한 운동기능의 습득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 따라서 운동기능이 우수한 학생들만이 참여하여 즐거움을 느끼는 수업이 대부분이었으며 상대적으로 기능이 떨어지는 학생들은 소외되는 현상이 있었다(조미혜, 2001).

따라서 이제는 일선 학교의 체육수업을 위한 교육환경과 여건을 고려하여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운동기능이 부족한 학생, 남녀 혼성학급의 학생 모두가 함께 참여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수준의 프로그램을 체육 전문직에 종사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연구원 및 시·도교육청 장학사, 체육교수, 체육교사가 서로 정보를 교환하여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체육과 교육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체육수업 환경과 현대 학생들의 흥미·관심을 고려해 볼 때, 평생스포츠로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계절성을 극복할 수 있는 인라인스케이팅과 레저스포츠 종목들이 체육과 교육과정의 내용편제에 포함되어야 하고, 실태 조사에서 파악된 체육시설의 여건에 맞는 운동형식을 변형한 프로그램을 적용한다든지 아니면 학생들의 흥미와 동기유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경기장의 규격과 기구의 축소, 경기 인원의 조절과 축소, 경기규칙 등을 학생 수준에 맞게 완화하거나 단순화시키는 변형·축소 스포츠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문호준, 2001).

이러한 결과는 장지원(1995)의 연구결과에서 밝혀진 체육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학습내용이 교과에 반영되어야 하고 여가활동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과 이진우(2002)가 주장한 학생들의 감성에 맞고 참여하는 신체활동 속에서 비판적 사고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내용이 교육과정의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야 한다는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으며, Thorpe와

Bunker(1982)의 연구에서 만약 학생들에게 운동경기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복합기능이 숙달되고 난 후에나 주게 된다면 일정 수준 이상의 기능을 갖출 수 없는 학생들의 경우 결코 시합이나 경기는 해 볼 수 없는 상황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게임이나 경기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규칙과 용기구를 변형하여 제시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비교해 볼 때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체육교육과정에 포함된 내용편제의 변화에 따라 체육교사용 지도서도 내용 지식보다 수업방법 지식으로 구성 비율이 확대되도록 해야 하며, 내용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나 출처를 간략히 제시해 주어 체육교사 스스로가 찾아볼 수 있도록 안내하는 대신 효과적으로 지도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소개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체육교과서와 지도서 외에 체육교사들이 필요로 하는 교과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보급하며, 업데이트 시김과 동시에 에듀넷을 비롯한 각종 교육정보 사이트에 자료를 올려서 원하는 체육교사들은 누구든 쉽게 이러한 자료에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행 교육과정의 체육교육 목표에 따른 평가내용의 폭이 확대되어야 하며, 체육교과의 평가에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평가도구의 개발과 준거의 마련 후 풍부한 평가기준의 예시자료가 일선 학교 현장의 체육교사들에게 보급되어야 한다. 특히, 체육과 수행평가의 실제 진행절차를 예시한 방법적 측면의 설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기능학습의 평가인 경우에는 단일한 기초기능과 기초과제에 의한 결과 위주의 평가를 지양하고 기본 움직임이나 운동기술이 실제 경기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종합적인 경기기능이 평가되어야 한다. 이것은 Siedentop(1996), Stiggins(1987) 및 Wiggin(1993) 등이 자신들의 연구결과에서 실제경기 상황하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 수행평가 정신에 타당한 실기평가라고 밝힌 것과 동일한 결과이다.

체육과 교육과정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으로 교육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며 학생들의 신체적 능력 수준에 맞춘 적정화를 위하여 국가 수준에서는 체육교과의 큰 영역을 설정해 주고 시·도교육청이나 학교 수준에서는 그 영역에 대한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발하여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해나가야 한다(손혜숙, 1991). 이를 위해서 학기별 이수영역의 지정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즉 1학기와 2학기에 이수할 부분을 지정하면 학교에서는 학기 내에 이수할 영역을 재구성하고 학교수준의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법과 단원별, 계절별, 영역별 구성의 절충형을 택함으로써 학습정보의 제공자와 참고서 개발자들이 학습자료의 개발에 참여함으로써 인터넷상의 정보와 자료의 부족을 해소하고 학부모나 학생들이 보조교재를 구입하는데 따르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적으로 규정된 현행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 1교시의 확실적인 시간배정도 체육교사의 필요와 학생의 여건에 따라 90분 수업이나, 100분 수업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현장 위주의 다양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체육교사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한편 단위학교마다 모니터링 제도를 마련하여 체육교육현장의 모범사례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에 적절한 매진과 시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때, 교육의 주체는 기존의 잘못된 교육관행 및 교육의식에서 벗어나 체육수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모니터링에 참여하여야 한다(교육인적자원부, 2003).

효율적인 체육과 교육과정의 개발과 정상적인 학교 체육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한 환경 조성으로 제반 여건 구비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함께, 학교 체육교육과정을 총 지휘할 교육과정 부장을 선정하고 체육교과의 업무를 세분화하여 학년별로 교사들을 배정·분담함으로써, 체육부장은 학년별 체육담당 교사들과 협의하여 학교수준의 체육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체육교사들이 교육과정 개정의 정신에 충실하게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 행정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요원의 배치를 통해 소위 체육교사의 잡무로 표현되는 수업외의 업무량을 경감시켜야 한다.

이 외에도 체육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자율적인 체육교사들의 노력을 독려하고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다양한 연수활동과 체육 교과 교육 모임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해나가는 한편, 체육교사들간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교사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나 수업자료, 수업전략 및 평가전략 등을 상호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효율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현행 체육과 교육과정의 홍보 전략으로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식 전환과 사회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는데 효과적인 언론매체를 통하여 체육교육의 흐름, 현재 이행되고 있는 모범사례 등을 계속적으로 홍보하여 새로운 교육과정이나 교육방법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종래의 교육과정 총론 중심 연수에서 실제로 구현하는 수업 개선 방법을 제시한 형태로 교육과정 연수가 변화되어야 하며, 이와 병행하여 제7차 교육과정지원장학협의단 시·도 교과요원 조직을 강화하고, 시·도 교과 요원에 대한 국가수준의 구체적·실천적 연수가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 시·도교육청, 단위학교로 이어지는 3단계 연수체제를 정립하여 교사 입장에서 문제해결 방안을 찾는 워크숍 형태의 연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교육인적자원부, 2003).

또한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을 중점 목표로 교육부 전체 직원, 시·도 총론요원, 시·도교육청의 교육과정 담당관을 비롯하여 교장 및 교감 등 관리자, 교무, 연구부장까지 다양한 계층의 연수가 실시되어야 하며 그 외에도 전체 10만 명이 넘는 교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부의 담당자가 직접 각 지역을 방문하여 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

체육교육과정이 의도한 대로 교육현장에서 실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입안자와 동일한 수준의 교과전문가가 학교 현장 가까이에서 그 적용과정에 적절한 지원과 도움을 지속적으로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과정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 체육교사들을 위해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 이전 교육과정과의 차이, 사례 등을 체육교사가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과 자료를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교육부, 2000).

이상과 같은 현행 체육과 교육과정의 효과적인 운영을 이끌어 내기 위한 인력과 시설, 예산 확보의 전략으로, 체육시설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수요와 공급을 예상하여 학교 체육시설의 확충에 대한 요청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운영이 어려우면 지방 차지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과 공공주변의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학교 내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스포츠 종합 시설을 건립하고 이를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연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김진환, 2003).

사실 수영이나, 스케이팅과 같은 내용을 지도하게 된다면 현 교육환경 하에서는 학교시설이 아닌 외부시설을 사용할 수 밖에 없으므로, 외부 시설 이용에 따른 과대한 교육경비 조달에 대한 방안과 학교 일과표를 벗어나 방학기간에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학교 체육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해야 함에 있어 교직원, 학부모, 학생, 지역사회 체육전문가 등이 함께 모여 협의할 수 있는 협의실이 필요하며, 이곳에는 학교 체육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필요한 도서와 자료가 비치되어 있고 수업준비, 평가처리, 각종 작업, 협의, 휴식 등을 겸할 수 있도록 다목적 공간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인력확보 측면에서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제7차 체육과 교육과정의 선택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과목을 담당할 체육교사의 확보가 중요한데 이를 위

해서는 신규교사의 임용이나 시간강사 혹은 순회교사, 학생들의 선택이 적거나, 학생이 선택한 과목을 가르칠 교사가 없을 경우 교육청의 교사가 인근 학교로 출장을 나가 강의를 하는 교육청 발령교사제 등을 통하여 각급 학교에서 필요한 체육교사를 충원·확보해야 한다(안국태, 2002).

또한 지역별 인력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 시도 교육청의 교육감 추천과정을 거쳐 각 사범대학에서 일부 신입생을 선발하고 이들이 졸업 후에 일정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관내 중등학교에 근무하도록 하는 향토교사제도와 각 시·도 소재 사범대학 졸업생이 도내 임용을 희망할 경우 우대조치 및 임용시험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다.

IV.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제7차 체육과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체육교사교육의 문헌자료를 조사하고 체육과 관련된 교육전문가 총 10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체육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교수-학습 방법

첫째, 체육과 교육과정의 내용은 일선 학교의 체육수업을 위한 교육환경과 현대 학생들의 흥미를 고려하여,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운동기능이 부족한 학생, 장애아, 남녀 혼성인 학급의 학생들이 모두 참여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수준의 교육내용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현대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고려해 볼 때, 평생스포츠로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계절성을 극복할 수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와

같은 레저스포츠 종목들이 체육과 교육과정의 내용편제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나라의 학교수업 환경 중 체육시설의 여건에 맞는 운동형식을 변형한 프로그램, 학생들의 흥미와 동기유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경기장의 규격과 기구의 축소, 경기인원의 조절과 축소, 경기규칙 등을 학생 수준에 맞게 완화하거나 단순화시키는 변형·축소 스포츠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넷째, 체육교사용 지도서는 내용 지식보다 수업방법 지식으로 구성 비율이 확대되도록 해야 하며, 내용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나 출처를 간략히 제시해 주어 체육교사 스스로가 찾아볼 수 있도록 안내하는 대신 효과적으로 지도해 줄 수 있는 교수방법들을 많이 소개해야 한다.

다섯째, 체육교사들이 필요로 하는 교과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그 자료를 에듀넷을 비롯한 각종 교육정보 사이트에 올려서 원하는 체육교사들은 누구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체육과 교육과정의 평가와 홍보

첫째, 현 교육과정의 체육교육 목표에 따른 평가내용의 폭이 확대되어야 하며, 체육교과의 평가에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신뢰성이 높고 타당한 다양한 평가도구의 개발과 평가준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우수한 평가사례를 발굴하여 그 평가기준의 예시자료를 일선 학교 현장의 체육교사들에게 보급하며 체육과 수행평가의 실제 진행 절차를 예시한 방법적 측면의 설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셋째, 기능학습의 평가인 경우에는 단일한 기초기능과 기초과제에 의한 결과 위주의 평가를 지양하고 기본움직임이나 운동기술이 실제 경기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종합적인 경기기능들을 평가해야 한다.

넷째,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인식전환과 사회적 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는데 효과적인 언론매체와 인터넷, 그리고 각종 연수와 체육교과모임을 통하여 체육교육의 흐름, 현재 이행되고 있는 모범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새로운 교육과정이나 교육방법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할 것이다.

3. 체육과 교육과정의 운영과 교육환경

첫째, 국가 수준에서 1학기와 2학기에 이수할 부분을 학기별로 지정하면 학교에서는 한 학기 내에 이수할 영역을 재구성하고 학교수준의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장 위주의 다양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된 현행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 1교시의 획일적인 시간배정을 체육교사의 필요와 학생의 여건에 따라 체육교사의 재량으로 90분 수업이나, 100분 수업으로 운영하고, 단위 학교마다 모니터링 제도를 마련하여 체육교육현장의 모범사례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에 적절한 매진과 시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체육교사들 간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교사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나 수업자료, 수업전략 및 평가전략 등을 상호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있어 효율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넷째, 체육과 교육과정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서 우선 일선 중·고등학교의 체육시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수요와 공급을 예상하여 학교체육시설의 확충에 대한 요청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 자치 예산의 활용, 공공주변의 시설 활용, 그리고 학교 내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스포츠종합 시설을 건립하고 이를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연계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다섯째, 신규 체육교사의 임용이나 시간강사 혹은 순회교사, 학생들의 선택이 적거나, 학생이 선택한 과목을 가르칠 교사가 없을 경우 교육청의

교사가 인근 학교로 출장을 나가 강의를 하는 교육청 발령교사제 등을 통하여 각급 학교에서 필요한 체육교사의 충원과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4. 체육과 교육과정의 개발

첫째, 효율적인 체육과 교육과정의 개발과 정상적인 학교 체육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한 체육교사들의 노력을 독려하고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다양한 연수활동과 체육교과교육 모임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해야 한다.

둘째, 일선 학교현장의 체육교사들을 위해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 이전 교육과정과의 차이, 사례 등을 체육교사가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과 자료를 개발하고 보급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교체육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제반 여건 구비와 함께 교육과정을 총괄할 교육과정 부장을 선정하고 체육교과의 업무를 세분화하여 학년별로 교사들을 배정·분담함으로써, 체육부장은 학년별 체육담당교사들과 협의하여 학교 수준의 체육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체육관련 행정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요원의 배치를 통해 수업 외의 업무량을 경감시켜 체육교사들이 수업과 학교체육교육과정 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강신복(1993). 체육교육과정이론. 서울:보경문화사.
2. 광병선(1985). 교육과정의 질 관리. 한국의 교육과정. 서울:한국교육개발원.
3. 교육부(2000). 제7차 교육과정 연수자료,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자료(Ⅰ) - 해설과

문답. 경기도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4. 교육인적자원부(2003). 2003년도 교과 교육과정 연수방향 설정 워크숍: 제7차 교육과정 지원 장학협의단 시·도 교과요원 연수자료.
5. 김재복(1996). 현행 교육과정의 분석·평가 연구 - 제6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개정 연구위원회.
6. 김재현(1997). 체육교육과정에 대한 교사의 관심도와 활용도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 김진환(2003). 생활체육 육성을 위한 스포츠 클럽 활성화 방안.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8. 김호권(1977). 현대 교육과정론. 서울:교육출판사.
9. 문호준(2001). 제7차 체육교육과정의 현장 적용 과정. 스포츠교육학회지 8(2).
10. 손혜숙(1991). 체육과 교육과정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1. 안국태(2002). 2003학년도 신규교사 임용. 경남교육청 제2회 교원양성기관과 임용기관과의 새로운 관계 정립을 위한 대 토론회.
12. 유정애(2001). 교사 전문성 연구.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7(2)
13. 이병준(2001). 제7차 체육과 교육과정의 현장 적용 방안 - 이상과 현실 그리고 인터넷에 대하여. 2001년도 한국스포츠교육학회 춘계세미나.
14. 이제옥(2001). 제7차 체육과 교육과정의 현장 적용 방안 탐색. 2001 한국스포츠교육학회 춘계세미나 자료집.
15. 이진우(2002). 중학교 체육교육과정의 시대적 변천과 개선방안.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6. 장지원(1995). 고등학교 체육교육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도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7. 정영근(2000). SBCD에 따른 교육과정 개발 방법의 고찰. 교육과정연구. 18(2).
18. 조난심(1999).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

- 편성 운영방안. KICE 연구포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9. 조미혜(1993). 체육교사가 인식하는 교육과정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연구. 제5회 한·일 건강체육교육 심포지엄.
 20. 조미혜(2001). 제7차 체육과 교육과정의 현장 적용 방안 - 제7차 고등학교 체육과 교육과정의 이해 및 효율적 실천 방안 탐색. 2001년도 한국스포츠교육학회 춘계세미나.
 21. 최의창(1996). 체육교육과정 탐구. 서울: 태근문화사.
 22.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1999). 21세기 교직발전 과제. 서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3. 한국교육개발원(1996). 교육과정2000 연구개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체제 구조안.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4. 허창혁(2001). 제7차 체육과 교육과정의 현장 적용 방안 - 이상과 현실 그리고 인터넷에 대하여. 2001년도 한국스포츠교육학회 춘계세미나.
 25. 황현자(1997). 고등학교 체육평가 실태와 그 개선 방향 탐색.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6. Eisner, E. W. (1985). *The educational imagination*. NY: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27. Toffler, A., & Heidi (1994). *Creating A New Civilization*. Atlanta: Turner Publishing.
 28. Moore, S., Wideman, M. D., & Dilling, H. J. (1984). Curriculum implementation : A survey of teachers' level-of-use "The program and the six-year old" and "Social and environmental studies (grades 5-6)". *Research report*. ERIC Document production Service N. ED 291 612.
 29. Thorpe, R., & Bunker, D. (1982). Form theory to practice : Two Examples of an understanding approach to the teaching of games. *Bulletin of Physical Education*, 18(1).
 30. Siedentop, D. (1996). *Physical education and education reform: The case for sport education*. In S. J. Silverman & C. D. Ennis(Eds.), *Student learning in physical education: Applying research to enhance instruction*. Champaign, IL: Human Kinetics.
 31. Stiggins, R. (1987). Design and development of performance assessment. *Educational Measurement: Issues and Practice*, 6(3).
 32. Wiggins, G. (1993). *Assessment: authenticity, context, and validity*. Phi, Delta Kappan.
 33. Leithwood, K. A. (1981). Meaning the Implementation of Curriculum Innovations. *Knowledge: Creation, Diffusion, Utilization*, 2(3).